

폐지 및 골판지원지 파동 국면 생산수율 개선으로 해결해야



오진수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회총합이사장
www.kcca.or.kr kcca01@empal.com

1. 심각한 상황의 골판지원지 파동

매년 반복되어왔던 골판지원지의 파동은 3, 4월 농산물포장재 수요가 시작되면서 발생되었고, 이내 수그러들면서 제자리를 찾아갔었다는 것은 시장참여자 모두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부터 시작된 골판지원지 파동은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의 기미는커녕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느낌이다. 더구나 9월 하순의 중추절은 골판지포장 수요를 극대화시켜 골판지원지 파동이 9월 이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도 있어 이래저래 골판지포장업계의 고달픔이 지속될 것 같다. 골판지포장업계를 40년 이상 지켜온 지방의 한 원로 조합원사 대표의 “IMF시절에도 느껴보지 못한 원자재 파동을 처음 피부로 느낀다”는 하소연에서 현재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대변하는 말이다.

2. 골판지원지 파동의 복합화 요인

중전의 골판지원지 파동은 농산물포장재에 많이 사용되는 골심지의 공급부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었지만, 이번 원료파동은 원료자원의 해외 유출과 저가정책

으로 인한 폐지 회수율 저하, 해외 원료가격의 폭등, 제지업계의 구조조정 완료, 아직 실감하지는 못하지만 내수경기의 회복, 유통단계별 가수요 등 제 요인들이 겹치면서 발생된 것으로 여러 복합요인이 작용하고 있어 어느 한두 가지 만을 해결한다고 해서 해소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리조합은 지난 6월 중순경 파동조짐을 보일 때 원료자원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폐지, 골판지원지업계에 원료자원의 수출자제를 요청하여 왔으며, 우리의 제안에 따라 지난 8월 초 산업자원부에서 연석회의를 개최토록하기도 하였다. 골판지원지 파동은 궁극적으로 가격 폭등과 생산차질을 초래하게 되면서 최악의 경영결과를 낳는다.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면 제품에 즉각적으로 반영시킨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1~3개월 시차로 반영되면서 적자의 골이 더욱 깊어진다는 점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수급마저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제품을 만들어 제때 공급을 할 수 없어 거래 안정화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골판지원지가격이 20%이상 인상되면서도 골판지상자 가격에 거의 반영시키지 못해 작년 경영실적이 최악의 수준을 면치 못하였고, 금년 상반기 상장기업 실적 발표에서도 상장 4개사 평균 영업이익률이 -120백만원을 기록할 만큼 부끄러운 실적을 보였다.

3. 산업자원부 주재 관련업계 회의

지난 산자부 연석회의에서는 제지업계와 중국으로 많은 량의 폐지를 수출하는 무역상과 깊이있는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자원부 제지 담당관, 골판지원지업계, 골판지포장업계, 지함업계 대표와 대 중국 폐지수출업체 대표와 제지전공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두시간 동안 심도있는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결론적으로 국산폐지를 수출하게 된 계기도 제지업계의 저가정책을 견지한데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공감하고, 향후 수출가격과의 경쟁을 지양하고 적정가격을 유지시켜 해외 유출 요인을 없애도록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골판지포장으로 통하는 동일한 이해관계를 지닌 동일 업종이라는 점에서 정보의 공유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수시로 만남을 갖고 각자의 애로를 해소해 가야 한다는 점을 공감했다. 아울러 골판지포장에 있어서 원료의 공급안정화가 매우 중요한 만큼 제지업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산 폐지시장을 견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회의를 마칠 수 있었다. 이번 회의의 결과가 뚜렷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회의적 시각도 있으나, 각 영역의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만으로도 그 뜻은 충분할 것이다. 회의를 마친 다음날부터 폐지 가격 조정 문제가 제기되고 일부 지역에서 매점된 폐지가 시장에 출하되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연석회의의 결과였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4. 원자재 부족의 근본 원인 탐색

그러나 이번 골판지원지 파동은 요인의 복합성에 따라 단순히 연석회의라는 선언적 행동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금방 수그러들 것으로 판단했던 골판지원지 부족현상은 점차 심해지고, 급기야 규모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골판지포장기업에서는 결폭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특히 K원지의 공급이 절대 부족해서 골판지원지업계의 폐지찾아 삼만리를 외치는 만큼이나 K원지를 공급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IMF체제 이후 포장다수요 분야인 경공업산업이 해외로 이전되면서 상품포장재의 해외유출(Out-put)보다 유입(In-put)이 많기 때문에 다시는 원자재 파동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빗나간 사례로 이해되는 이번 파동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폐지의 부족이 파동의 1차 원인을 제공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폐지자원의 유입이 유출보다 많은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파동은 결코 폐지의 절대량이 부족해서 전적으로 발생되었다는 판단을 부정하는 셈이 된다.

5. 골판지원지 생산 수율 개선 요구

우리가 보는 근원적인 요인은 폐지자원의 관리가 너무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지난 70년대 제지업계의 폐지수율은 75% 수준이라는 게 정설인데 3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폐지의 수율이 70~80% 수준에 머물렀다는 사실은 제지업계의 자성이 요구되는 일이고, 이러한 수치는 연간 최고 150만 톤 이상이 관리부족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제지업계의 수율개선 여부가 제품가격 안정화를 결정하고 품질경쟁을 지향시키기 때문에 향후 골판지포장업계의 경영안정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 골판지원지업계에서는 골판지포장업계의 수율개선요구가 경영간섭이라 폄하할 것이 아니라, 깊이 새겨야 하는 교훈이라 여겨주길 기대한다.